20년 실패거듭 황금백자 '결실'

산문밖의 禪

도예가 은정식 씨

"교리이해·솜씨 어우러질때 진정한 불교예술가"

실패도 성공의 일부…초조는 작품구상의 큰 적

그는 쉬고 있었다.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삼성리의 분원요(分院窯)는 신록에 덮혀 고즈넉했다. 보름간의 작업 끝에 단 한점의 도자기를 완성하고 쉬고 있는 은정식씨(46세).

그러나 그는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산고(産苦)를 씻어내고 있었다. 완성된 도자기를 감상하는 법열을 누리고 있었다. 화염변상도를 지름 45㎝ 가량의 접시형 진사도자기에 순금으로 그려 넣은 새로운 작품을 완성한 뒤 은씨가 누리는 법열. 이런 기쁨은 그를 도예인으로 살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수록 마음이 넉넉해 집니다. 어렵게 완성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또하나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진사와 순금이 어우러진 변상도 접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은씨가 새로 완성한 작품은 철사나 청화보다 훨씬 어려운 진사도자기와 순금의 접합을 절묘하게 이뤄낸 것이다. 구리를 1천 3백도의 불에 태워 얻은 가루로 진고등의 바탕색을 삼고 그 위에 다시 순금으로 변상도를 직접 그려 넣은 이 작품은 도예기법과 변상도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한 것이다.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 주지 않고 혼자 감상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보람을 만끽하고 있는것이다.

"불교미술의 세계로 발을 들여 놓고 보니 이제껏 도자기 공부한 것은 연습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조각이건 평면화건 불교미술은 교리와 솜씨와 조형미를 종합적으로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엄두도 못낼 일임을 알게 된 것이죠. 황금백자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왔으나 이제 그 황금백자를 불교미술로 완성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고 이 작품이 그 첫 결실인 셈입니다."

황금백자. 20여년간 은씨의 화두였다. 남들이 내놓지 않는 작품을 하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에서 황금백자를 떠 올렸고 관련 문헌을 뒤지다가 실제 황금도자기에 대한 기록도 찾아 냈다. 〈고려사열전〉에 원나라 진상용으로 청자에 금화(金畫)를 그린 도자기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제작기법은 전혀 전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혼자 연구하고 도전하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20여년을 보내야 했다. 재료가 '금값'인 황금을 버려가며 가난을 견뎌내며 그는 세월과 자신의 역량 그리고 황금과의 싸움을 했던 것이다. 그런 고난의 세월 끝에서 그는 성공했다. 몇차례의 전시회와 국제특허획득(제077859호)이 그의 손을 황금의 손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황금과 흙은 쉽게 만나지 않더군요. 성공했는가 싶으면 도자에서 금이 떨어져 나갔고 다시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보통의 도자기는 재벌만 구우면 되지만 황금도자기는 일곱번까지 가마에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물론 그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온도의 조절인데 이 온도의 조절에서 성공과 실패가 가름됩니다."

황금백자의 맛은 순박함과 화려함의 조화에 있다. 백자의 순박과 황금의 찬란이 만나 이뤄내는 아름다움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두 극단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자칫 유치해지기 쉽다. 거기다 창작도자기의 형상과 금의 조화도 쉽게 생각할 점이 아니다. 흙과 불과 금 그리고 작품의 형태가 모두 '궁합'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백자나 청자는 한 가마에서 30% 내지 40% 완성품을 건진다지만 황금백자는 그렇지 않다. 성공 아니면 실패다. 금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금을 금답게 발색(發色)시키기도 어렵지만 흙도 흙 나름대로 황금을 만나면 까탈을 잘 부리기 때문에 매번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마에 작품을 넣고 불을 지피고 다시 가마를 열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힘듭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염려로 온 몸이 긴장 되니까요. 그 긴장으로부터 초연해 질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도자기 굽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 그 경지가 쉬운 것이겠습니까. 가마의 문을 여는 순간 성공과 실패가 금방 느껴집니다. 실패에서 좌절하지 않는 마음만 제대로 지켜도 큰 도공이라 할만 하지요."

20년의 연구와 실패 끝에 그가 황금백자에 자신감을 가진 것은 90년부터다. 91년에는 운보 김기창화백과 공동작업으로 황금도자기전을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패할 확률은 여전히 안고 있다. 자신감이 곧 성공은 아닌 것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실패도 성공의 일부라고 믿고 있다.

그는 도자예술의 필수 요건으로 전통계승과 시대정서를 꼽는다. 황금백자 제작기법을 글로 정리하고 제작과정을 비디오 테잎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누군가 계승해야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고려시대의 황금 도자를 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황금백자는 금을 금답게 발색시키기도 어렵지만 흙도 흙나름대로 황금을 만나면 까탈을 잘 부리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의 긴장에서 초연해질 때 도예가 은정식씨는 도자기 굽는 사람이 아닌 경지에 다다른다.

가마 문여는 순간 성패 피부로 느껴

약천사 1백8만 황금부처님 조성

"가마의 문을 여는 순간 성공과 실패가 금방 느껴집니다. 실패에서 좌절하지 않는 마음만 제대로 지켜도 큰 도공이라 할만 하지요."

20년의 연구와 실패 끝에 그가 황금백자에 자신감을 가진 것은 90년부터다. 91년에는 운보 김기창화백과 공동작업으로 황금도자기전을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패할 확률은 여전히 안고 있다. 자신감이 곧 성공은 아닌 것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실패도 성공의 일부라고 믿고 있다.

그는 도자예술의 필수 요건으로 전통계승과 시대정서를 꼽는다. 황금백자 제작기법을 글로 정리하고 제작과정을 비디오 테잎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누군가 계승해야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고려시대의 황금 도자를 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흙도 흙 나름대로 황금을 만나면 까탈을 잘 부리기 때문에 매번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마에 작품을 넣고 불을 지피고 다시 가마를 열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힘듭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염려로 온 몸이 긴장 되니까요. 그 긴장으로부터 초연해 질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도자기 굽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 그 경지가 쉬운 것이겠습니까. 가마의 문을 여는 순간 성공과 실패가 금방 느껴집니다. 실패에서 좌절하지 않는 마음만 제대로 지켜도 큰 도공이라 할만 하지요."

"밤이면 이곳은 그야말로 적막산중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이 적요 속에서 나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합니다. 세상에 없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가벼운 작업이 아니죠.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가장 큰 적입니다. 마음이 초조해지면 아무런 형상도 떠오르지 않거든요. 불상을 조성하고 변상도를 그리며 불교미술에 마음을 두고나니 마음을 비운 곳에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배우게 되는군요."

광주=임연태 기자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부처님 가르침 쉽게 알려주세요

문 초파일을 맞아 불자가 되어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유명·서울 중구 서소문동〉

답 염화미소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테지요.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왜 한송이 꽃을 들어보이셨느냐 하면 세상만물은 모두 하나로 이어졌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에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고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없듯이 전부가 상대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입니다. 일체는 한마음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3천년 전에 그렇게 일러 주셨는데도 과학자들은 지금껏 그 점을 해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비유해 봅시다. 수만가지를 하고 수만가지를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데 그거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고정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게 꼭 바퀴돌이 같습니다. 그걸 불바퀴다, 법바퀴다 그럽니다. 한마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응용하는게 법바퀴요 불바퀴입니다. 마치 거대한 발전소에서 전력을 용도껏 끌어다 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전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안으로 닦아가는 마음공부를 통해 한마음의 이치를 터득하면 경전에 적힌 부처님 말씀이 한마디도 한데로 떨어지지 않음을 알게될 것입니다.

이제 막 공부하실 작정을 하셨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점을 굳게 믿어 내 마음 밝히는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이 책 저 책 뒤적이면서 사량으로 분별지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공부는 자칫 노예의 같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무를 쪼개보아도 그 속에서 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안에 꽃을 피울 잠재된 힘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안으로 불을 밝혀 보세요. 그렇다고 또 거기에 머무르는 생각을 낸다면 그 또한 무의 세계에 묶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속의 꽃을 피우는 잠재된 힘, 그것이 바로 나를 포함해 일체 우주를 있게한 한마음입니다. 이 뜻을 잘 음미해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축생계 떨어질까 두려워…

문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매한 중생들은 혹시 지옥이나 축생계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 다스려야 합니까? 〈정지숙·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답 지옥에 떨어지면 어쩌나, 짐승의 몸을 받으면 어쩌나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그걸 몽땅 놓으세요. 두려움 없는게 원력입니다. 그런 것을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지요? 그렇다고 누가 지옥에 안가게, 짐승몸 안받게 해주는 것도 아니구요. 그러니 빌긴 어따가 빕니까?

잘났든 못났든 자기를 믿고… 나 없으면 우주도 없는데 뭘 그런 시시껄렁한 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하고 탁 내던지세요. 그렇게 하시면 다시 탄생하실 겁니다. 허허허….

'이뭐꼬'로 공부해도 되는지요

문 시심마, 이뭐꼬? 이 주인공이 무엇이냐? 하는 마음자세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서용진·인천 부평구 구산동〉

답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질문하셨으니 다시 말씀드리지요.

예를들어 작년에 거둔 수박씨를 심어서 올해 수박을 수확했는데 이 수박이 무슨 수박인고? 하면 이미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지는 말고 그냥 수박을 쩍 쪼개서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수박을 쩍 쪼개면 그 속에 수박씨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수박씨를 봄에 다시 심으면 또 수박 열리고, 다시 쪼개 심으면 또 열리고…, 그렇게 수박씨 하나로 만중생을 먹여 살리고도 되남는 도리가 있으니 십년, 이십년 세월 보내며 이 수박씨가 뭔가 할 것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옛날로치면 모두 박사급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레 이게 뭔고? 하고 가르치면 사량만 늘게 됩니다. 그러니 수박 속에 수박씨 있는걸 아는 이상 그냥 밀고 들어가라, 탁 말기고 놓고가라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박이 절로 쩍 쪼개져 실상을 그대로 꿰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주인공 너 알아서 하라' 하고 말기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화두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몸 이렇게 나온게 화두이니 따로 화두를 붙일 필요가 없질 않겠습니까? 화두에 화두를 붙이면 긁어 부스럼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헤어나기가 무겁고 어렵지요. 그래서 화두다 아니다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분명한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음으로써 생각을 낼 수도 있고 생각 냄으로써 움직이질 않습니까?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찰나로 고정됨이 없이 돌고 도는데… 세상에 태어나 한 곳에 붙박이처럼 붙어 살 수 없는데 어느 때를 나라고 하고 어느 이름을 내 이름이라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죽든지 살든지 모든게 한군데서 나오니 나오는 데에다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공을 믿으실 겁니까? 형상을 믿으실 겁니까? 이름을 믿으실 겁니까? 믿을 건덕지가 있어야 믿을테니 네 근본을 믿어라, 너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믿어라 하는 것이지요. 주인공도 이름입니다.

불우 이웃 및 청소년 돕기 자선 일일 찻집

■ 주최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제8대 총 사회 복지회
■ 주관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제9기 사회복지회
■ 후원 : 총 학생회 총 동림회 총 동창회

▶ 일시 : 96년 5월 28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 장소 : 조계사 내 산중다원
▶ 연락처 : 불교대학원 사무처 264-2085 산중다원 736-1678

생식

자연의 정기를 가득담은 生命食
대자연과 선사인류가 가르쳐준 生食
몸과 마음을 바로 잡는 正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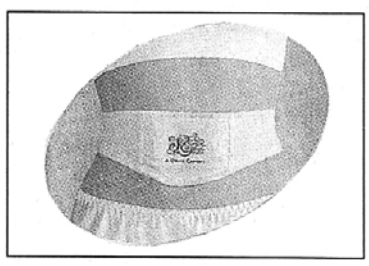
생식 산사에 계신 스님들과 여러 불자님들께
생식 어려운 생식을 쉽게 하는 방법
생식 食貪과 모든 욕심이 사라지는 생식
생식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가는 새로운 경험의 생식
생식 맑은 정신과 건전한 육체로 정진할 수 있는 무공해 생식

생식은 현미, 잡곡, 콩류, 야채류, 과일 등 30여종의 원료를 동결건조시켜 어떠한 첨가물이나 인공감미료, 방부제 없이 제조하여 휴대하기 편하고 먹기 쉽게 1회용 포장한 분말제품입니다.

불자생식동호회
전화 : 032-655-6111/3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